

2019 새 설계

명 현 관 해남군수

“따뜻한 복지·소득안전망 확충...미래 열어갈 해남건설 온 힘”



“군민과 함께 민선 7기 새로운 해남으로 큰 걸음을 내딛은 만큼 2019년에는 새로운 해남, 빛나는 해남을 향한 꿈을 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간 구상해온 군정발전의 밑그림 위에 구체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한편 새로운 해남의 미래를 열어갈 장기 발전 전략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 군수는 다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과 소득안전망 확충, 전 세대에 걸친 따뜻한 복지, 특색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육성, 균형 있고 활기찬 지역개발 등을 군정의 주요시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육성과 주민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다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농민수당은 연 2차례 총 60만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발행 조례도 지난해 말 군의회를 통과, 발행을 위한

농민수당·지역상품권 발행 등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최선

균형 있고 활기찬 지역개발 추진

후속 조치에 착수한 상태이다.

명 군수는 농민수당을 비롯해 공직자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내에서 지역농수산물 소비하는 2030 푸드플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첨단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명 군수는 강조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국 1위 친환경 인증면적(4480ha)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과 150억원 규모의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어촌뉴딜300 사업 2개소 선정 등 농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명 군수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 속

에서도 해남은 지난해 함께 출산을 6년 연속 전국 1위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그동안 출산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삼아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재정비에 나선다.

명 군수는 “출산정책의 지속 추진과 함께 올해는 보육과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전남도 대표축제인 명랑대첩제를 제외하고 축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해남군 대표축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그는 “고구마와 배추, 쌀, 김 등 해남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끝에는 세계의 땅끝 공원을 조성해 땅끝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조만간 개관할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가학산 치유의 숲, 우수영 역사관광촌, 대섬 어촌복합 체험공원과 임하도 상괘이 생태공원 등 해남만의 역사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화해 차별화된 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도 주요 사업은

▲다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소득안전망 확충

▲전 세대에 걸친 따뜻한 복지

▲특색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육성

▲균형 있고 활기찬 지역개발

군이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올 초 공설추도공원 개관과 오는 5월 군청사 착공 등 대형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는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지난해 대규모 국비 확보로 숙원이었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현안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흡한 것은 채우며, 잘된 것은 고배를 더욱 당기겠다”면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내 각종 대규모 사업 활기...지역경제 살아난다

대명 솔비치호텔&리조트 진도·진도항 2단계 건설 등 경제 파급효과 260억 추산

진도군이 추진 중인 대명 솔비치호텔&리조트 진도와, 국도 18호선 포산~서망간 도로 확장, 진도항 2단계 건설, LH 공공임대주택신축 등 대규모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하는 공사로 지역 내 덤프트럭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장비 임대료 119억원과 레미콘 아스콘 등의 건설자재 구입비가 79억원,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37억원,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액 25억원 등 연

간 총 26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군은 어려운 시장 경기에 대형 건설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건설기계 임대업, 각종건설자재 판매업소 등에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적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 정주 여건과 교통편의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지난 2011년 4399억원에 불과하던 군민소득이 올해는 농업소득 3945억원, 수산소득 5452억원 등 총 9397억원으로 4998억원이 증가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은 매생이 생산 어민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의 하나로 13일까지 이마트 147개 전국 매장에서 ‘완도 웰빙 매생이 직거래 판매장’을 연다. <완도군 제공>

해남 가학산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록

2020년부터 운영비 국비 지원...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기대

해남 가학산 자연휴양림 내 유아숲체험 시설이 정식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됐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조건과 운영 프로그램, 전문 운영인력 등 법적 등록기준에 대해 서류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산림청장이 등록한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유아숲체험원은 2016년부터 전문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유아숲체험원 등록으로 2020년부터 유

아숲 지도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아숲 교육, 일반인, 장애인, 중학교 자 유학년제 등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아숲 지도사, 숲 해설가, 산림지유 지도사 등 산림분야 전문 일자리 양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숲 놀이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 인원은 2016년 1310명에서 2018년 3742명으로 크게 늘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유아들이 숲의 가치와



유아숲 놀이 프로그램 모습.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매생이로 미세먼지 걸러 내세요”

군, 13일까지 이마트 147곳 직거래 판매장 개설 소비촉진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완도 매생이 드세요.”

완도군은 매생이 생산 어민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의 하나로 13일까지 이마트 147개 전국 매장에서 ‘완도 웰빙 매생이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했다. 1만3000 상자(1상자 10제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매생이값은 현재 1제기(380~400g)에 700~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00~1500원)보다 하락했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청정한 지역

에서만 생산되는 ‘무공해’ 식품의 대표로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70%가량 생산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40배나 많은 철분이 함유돼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가 많아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줘 매생이가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좋은 음식으로 꼽히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